

주체에 기초한 현대 공간 디자인의 사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entual Aspects of Contemporary Space Design based on the Subject

Author 김석영 Kim, Suk-Young / 정회원, 동양미래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o interpret a change of discourse can be a method to understand architectural space in progress. With this idea, features of modern age which motivated sense of the contemporary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and subsequently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space differentiated from the modern were researched. First of all, features of subject which provided a base of modern thoughts were contemplated. The word 'modern' is used in wide and various terms but basically its core conception consists of reason and universal rationality. The subject of the modern age has vision-centric features just like an ideal representation principle of perspective. Given the fact, it was confirmed that a position to become a right subject, that is, a position controlled by reason existed and that it was to guarantee subject a truth. However, the contemporary subject keeps changing with a purpose of escaping from modern characteristics. It presents a tendency to escape from rationalism of the modern age and Platonism of the ancient Greece which established a basis of western ideology. The subject-centered ideas came to focus on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 firmed fundamentally in deep inside of subject. The contemporary subject which escaped from the stiffen ideas bears a meaning through events taking place on immanence surface and serialization. Also, the contemporary architectural space is considered to go abreast with the change and tren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features of event-oriented architectural space based on the changing contemporary subject appear as process-based space, user-participated space and individual-cognition space and the like.

Keywords 주제, 사건, 과정 중심, 사용자 참여, 내재성
Subject, Event, Process-based, User Participation, Imman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구사상은 자연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자의 존재를 묻는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서구의 사상은 절대적 가치의 탐구가 아닌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양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불변의 진리와 가치의 대립 영역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요소들 즉 순간, 사건 그리고 욕망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시대의 사고를 명료한 연표로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고대 플라톤 철학의 에피스테메(Episteme, 認識素)의 개념으로 한 시대의 지식 일반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이 시대에

따라 의식의 중요한 하부구조는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사유의 동인(動因)이 된 근대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것은 현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대의 이해를 통해 현대를 파악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사고는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공간 디자인의 변화와도 관계 맺고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사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이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거 모더니즘 건축과 대별되는 새로운 공간적 관점으로 현대 공간 디자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원성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의 이해를 돕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근대의 주체와 사고의 선이해를 토대로 현대 사유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현대 공간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근대 공간 디자인의 동력이 된 사상과 특징 그리고 근대적 주체에 대해 먼저 고찰한다.

근대의 사유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의 사유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근대 사유에 집중한다. 즉 근대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대적 주체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근대 건축 공간을 되짚어 본다.

이어서 3장에서는 현대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공간적인 특징과 연관된 사건적 특징에 대해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사건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존재론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상태, 즉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기에 덧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건 개념은 서구 고전철학이 추구했던 초월성에 상대되는 현대 철학의 다양한 개념 중 하나이다. 또한 계몽을 토대로 한 근대의 합리적 주지주의(主知主義)에 대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현대의 사건개념 이해를 위해 근대로부터 변화해 온 주체의 개념을 함께 고찰한다. 1960년대 이후 탈(脫)이란 접두어로 파악되는 근대의 개념에는 분명 전시대와 구분되는 주체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건이 주목받는 사유와 상당부분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변화한 주체관으로 설명되는 사건개념이 드러나는 건축공간에 대해 조사한다. 탈근대의 시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간 디자인은 근대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는 2000년대 이후의 최근 작품에 집중 하되 1960년대 이후 변화의 시작점에서 확인된 프로젝트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¹⁾ 선정 사례의 기능적 성격은 공공 공간으로 한정한다. 개인 공간에서 본 연구가 집중하는 사건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주체의 다자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사용자와 관련된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방법으로 근대와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1) 본 연구의 사례는 근대 이후의 공간디자인의 사건적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사례를 특정 건축가로 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공간의 사건적 특성은 공간을 계획한 건축가의 아이디어보다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4.2절의 사례 중 르 꼬르뷔제의 페사크 주택은 공공공간이 아닌 개인 주거공간이다. 본 연구가 공공 공간으로 사례의 선정기준을 정했음에도 개인 주거공간을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페사크 주택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다수의 거주자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공간에 거주자의 개별적인 변형이 과거 근대적 사고들에서는 부정으로 여겨졌으나, 탈근대에 이르러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현대 공간 디자인의 사건 중심성을 밝히고자 한다.

2. 근대 건축공간의 철학적 배경

2.1. 근대적 합리주의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티(근대성)라는 용어들은 불분명하게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9세기 전반의 시점에서 서구 문명사의 한 단계에 속하는 모더니티와 미적 개념으로서의 모더니티 사이에는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적대적 균열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근대성은 전 시대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교회의 권위나 봉건성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문명사적 근대성은 과학과 기술의 유용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 시간(측정할 수 있는 시간, 교환가치를 지닌 시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산층에 의해 수립된 문명의 가치와 연루된 것이다. 그리고 후자인 미적 개념으로서의 근대성은 전자와 대조적으로 낭만적 시초와 개혁적인 반(反)부르주아적 태도를 갖고 있는 전위(아방가르드)적 특성이다.³⁾

분명 근대기는 상반되는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지만, 현대의 다양성과는 상반된 뚜렷한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제로 하는 '근대성'은 보편적인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근대의 사유와 개념에 집중한다.

근대 서구의 합리적 사고의 원류는 플라톤에서 비롯되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변론술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이데아라는 초월성을 주장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질 들뢰즈(Gilles Deleuze) 등의 현대 철학자들은 바로 이점이 서구의 사상이 극복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있다. 플라톤의 초월성이자 동시에 현대 철학의 비판적 관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선별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다. 둘째, 선별의 기준이 되는 초월적인 것과의 근접 정도(유사함의 정도)를 따라서 존재론적인 서열과 존재론적 위상의 비등가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초월적인 외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 즉 차이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유했다는 점이다.⁴⁾

플라톤 철학의 초월적인 것, 즉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아이데스(보이지 않는 것)라고 불리며, 이성만이 파악할 수 있는 영원불변하고 단일한 세계를 이루어, 끊임없이 변천하는 감각세계의 사물과는 구별되는 것이

3)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공역, 시각과 언어, 1994, p.53.

4)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이학사, 2008, pp.533-534.

다.⁵⁾ 이렇듯이 전통적으로 시각은 여타의 감각들과 달리 가장 분명한 특권적 감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이데아론의 시각 중심적 사고는 서구 근대 사상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는 다양하게 해석되기는 하지만, 현대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오로지 이성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는 합리주의가 토대가 되어 형성된 문화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오늘날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적 시각중심주의는 르네상스의 원근법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2.2. 원근법적 주체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적 주체는 중세의 신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된다. 근대적 주체는 모든 사물의 판단 기준을 주체 내부(이성)에 설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주체’가 된 것이다.⁶⁾ 따라서 사회적 계급에 종속되어 억압받는 주체도 아니다. 주술적 사회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적 동일성을 스스로 유지하는 주체이다.

근대 철학을 연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란 명제는 ‘생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gitare의 1인칭 형태로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즉 생각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신의 피조물인 자연(대상)에서부터 분리된 주체이다.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하며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고는 원근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투시도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에서 기준의 위치를 확보한 특권적 시선이 근대의 시각 중심적 시선이며, 이것은 결국 특권적 주체와 상응한다. 데카르트가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고하는 중심으로서 상정한 주체는 세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영유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특권적 한 점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은 올바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기 위한 자리, 이성의 지배를 받는 자리,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포착하고 영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중심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근대의 ‘자율적인 주체’는 자기유지를 위해 스스로 중심으로 이동하는 즉 ‘주체화’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원근법적 사고는 회화의 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적 사고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하나의 체제를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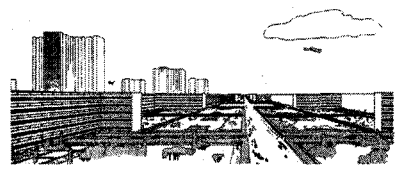
그렇지만 근대 주체는 언제나 인식주체와 대상의 일치, 즉 진리를 목표로 하는데 둘 사이에서 진리를 보증해 줄 어떤 절대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⁸⁾ 근대의 주체를 지탱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innate idea)’, 완벽한 진리로 인식되는 수학과 과학 그리고 칸트가 상정한 선험성 등이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감각과 신체, 감정 등을 배제한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

근대 공간은 이러한 독립적이고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닌 원근법적 주체와 무관하지 않다. 근대의 설계자는 공간 구성의 주체로서 인식론적으로 사고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자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을 소유한다. 즉 이성적 사고로 무장한 설계자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이양 받은 주체이다.

그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한 건축가가 안드레아 팔라디오다. 르네상스기의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기하학적 비례로 이뤄진 건축의 규범을 제시했으며 서구 건축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⁹⁾ 서구 건축의 주체는 20세기 초 독일공작연맹(Deutsche Werkbund, DWB) 등이 시도한 건축공간의 규격화, 합리화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공간의 규격화 결과로 사용자는 개인의 의지를 떠나 일정 규격에 의해 주어진 공간에 순응하고 정주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차이가 아닌 보편성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이 확대, 보급된 때는 1928년 스위스에서 르 꼬르뷔제를 위시한 당대의 유명건축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근대건축 국제회의(CIAM)의 역할이 크다. 이어서 1933년 영국에서는 근대건축 연구단체(MARS: Modern Architecture Research Group)가 결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기능주의와 공업화에 입각한 합리적 건축과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들은 ‘국제주의양식’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건축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다른 종류의 미학적 양식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양식을 대체할 유일하고 올바른 건축방법으로 제시했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주의적 결과를 제시하고자한 것이다.¹⁰⁾ 1922년 발표한 르 꼬르뷔제의 ‘300만을 위한 도시’ 계획안은 직교하는 격자의 거리와 수학적 비례와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채워진 획일화된 양식이 만들어진 도시이거나 추상화된 입방체적



<그림 1> 르 꼬르뷔제, 300만을 위한 도시

5) 네이버 백과사전, 이데아 [idea] 참조.

6)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사, 2001, p.158

7)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7, p.120

8)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개정증보판), 그린비, 2010, p.61

9)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1566년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심서를 연구해 도해를 집어넣었으며, 1579년에는 「건축사서(I Quattro Libri dell' Architettura)」를 발간했다. 명쾌하고 모호함 없는 ‘정확한’ 고전주의를 제시했다. 팔라디오의 건축은 이후의 신고전주의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비단트 클라센, 서양건축사, 신우갑·조희철 역, 아키그램, 2003, p.159

10) 마크 켈런터,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생각, 최아사 역, 한길사, 2007, p.327

공간들이었다.

근대의 공간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국제주의 양식적 공간은 인간의 지각이나 체험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였다. 그러한 공간은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나타나듯이 양화 가능한 공간이며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공간이다.¹¹⁾ 원근법적으로 획일화된 시각체계에 따른 근대 공간은 계획의 주체인 건축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객체로서의 공간이다.

더구나 20세기에 등장한 기능주의에서는 주체의 역할이 건축가를 넘어 건축물 자체에 이르게 된다. 기능이란 단어는 용도를 대체하는 단어로 도입되었으며, 기능주의는 기능적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연스럽게 미적 가치가 만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생물학에 사용되었던 기능이란 용어가 건축에 사용된 것은 미국의 조각가 그리너프(Horatio Greenough)에 의해서다. 이후 루이스 설리반의 경구로 유명해 졌다.¹²⁾ 기능은 이전에 건축에 사용되었던 용도라는 단어와는 달리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용도는 어떠한 도구가 무언가에 사용된다는 의미이지만, 기능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용도의 주체는 사용자인 반면 기능의 주체는 작동하는 물체 혹은 기관이다. 기능주의는 건축물 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의 생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¹³⁾

최근 절대적 이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고는 변화를 겪고 있다. 회화에서는 과거 고전회화에서 화폭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 규범이 되었던 재현에 대한 집착이 해체되었다. 예술영역에서 입체파와 인상주의 회화에 의한 원근법의 해체는 근대적 공간 개념인 시각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는 동인이 되었다.

주체를 중심으로 하던 사고 또한 주체 하부에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와 관계의 탐구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건축공간뿐만 아니라 인류학, 언어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로 수렴되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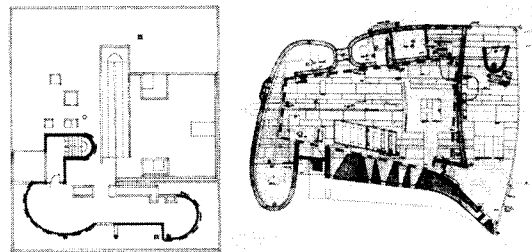
3. 현대 건축공간의 사건개념

본 장은 앞에서 다룬 근대주체의 특징과 상대되는 오늘날의 특징에 대해 주목한다. 현대 사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대철학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에 집중한다. 2.1장에서 전술한 현대의 사유가 근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 집중한다. 이어서 이러한 특성들이 오늘날의 현대 건축공간에 어떻게 연관되어 드러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1. 합리적 객관성에 대한 반작용

건축에 있어서 합리주의에 대한 해체는 몇몇 근대의 거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르 꼬르뷔제는 통상의 노트르담 순례교회를 발표했다. 합리적 형태와 비례체계에 근거했던 그의 이전 작업들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은유들로 이뤄진 형태였다. 그러나 실내 계획은 외부의 비정형적 형태와는 대조되는 기하학적 추상성이 강조되었다. 그의 이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합리적 외부 형태와 결합된 실내의 자유로운 곡선 요소들이 역전된 양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후 에로 사아리넨 등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새로운 표현주의를 표방한 작품이 나타났다. 건축에 있어서의 이러한 분위기는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세계를 화해시키려는 당대의 철학적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20세기 건축에서 환경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명료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인간과 세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건축이론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형태합성에 관한 연구」(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1964)에서 디자이너는 모든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입관이 문제해결과 무관한 해결책을 스스로 믿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이다. 그는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같이 참여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제안을 했다. 이러한 ‘참여디자인’은 변화하는 공간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적용하는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연속적이고 공유된 이슈들을 무시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점만을 부각시켰다는 한계를 갖는다.¹⁵⁾ 이러한 사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하고 사유하는 주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그림 2>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사(1928)와 통상 노트르담 순례교회(1950-54) 평면비교

3.2. 근대 이후의 주체

근대 이후, 범주를 이용하여 다수를 하나로 묶는, 보편성의 전제가 사라지면서 대상과 주체의 이원적 관계가 아닌 구조언어학에서 연원한 구조주의적 입장이 나타났

11)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p.157

12) 서현, 건축을 묻다, 효형출판, 2009, p.151

13) ‘꽃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가?’와 ‘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두 문장의 주체는 서로 다르다. 서현, 위의 책, pp.164-165

14) 마크 켈런터, 앞의 책, p.335

15) 마크 켈런터, 앞의 책, p.345

다. 구조주의는 세계의 근저에 있는 내부구조를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구조주의는 소쉬르의 언어학을 배경으로 한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의와 기표는 어떤 재현 또는 지시관계에 있지 않으며, 의미는 차이의 그물망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의의 획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이것은 서구 형이상학의 전복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체, 인간, 의미, 의식, 상부구조는 관계, 차이, 구조가 만드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았다. 또한 옳다/그르다, 좋다/나쁘다라는 개념들도 주체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따라서 사유의 중심에 서서 전체를 관조하던 주체는 다수의 주체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부차적인 위치로 강등되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신화적 세계로부터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나'를 상징하는 과정이었던 것과 같이 근대 사고는 주체를 개별적으로 독립시켰다. 근대 이전의 서구 사회는 고대 도시국가, 절대적 종교 그리고 절대왕정 등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왔다. 따라서 개인의 독립성보다는 집단적 사회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그 개인이란 독립적 주체가 확립되었다. 고대와 중세 건축물의 이름이 지명, 종교 또는 황제의 이름으로부터 명명되었던 것에 반해 근대에 이르러서는 건축주 등 개인으로부터 건물의 명칭이 결정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건축에 있어서 변화된 주체(독립적 객체)의 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유는 계보를 선별하고 분류하고자 하는 근대 주체의 실증적 차원에 또다시 변화를 가한다. 즉 현대의 주체에서는 인식의 대상인 객체와 구분이 모호해진다. 플라톤은 「소피스테스」에서 우상-이미지(images-idoles)의 영역을 도상적 사본(copies-icônes)의 영역과 환상적 환영들(simulacres-phantasmes)로 구분하고 환상적 환영들을 악마적 성격의 그릇된 사본으로 정의한다.¹⁷⁾ 당시에는 사물과 이데아 사이의 유사관계에서 이데아와 유사정도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판단했다. 반면 오늘날에는 사본의 사본, 무한히 격하된 도상, 무한히 느슨해진 유사성으로 정의되는 환영(시물라크르, simlacre)을 중심에 둬으로서 플라톤적 재현을 의심한다. 따라서 재현의 지시관계는 사라지고 감각이전의 선형적 차원(초월성과 무관한), 비재현적 차원만이 남게 된다.

들뢰즈는 이러한 차원을 내재성으로 설명한다. 내재성은 어떠한 대상도 표상하지 않으며 어떠한 주체에도 속하지 않는 생명의 차원을 의미한다. 내재성은 이질성과 내적 다수성의 환경을 이루기 때문에 경험적인 존재자들

은 언제나 새로움에 직면하고 우발적인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내재성'이 현실적인 것의 생산 원리가 된다면, 세계의 모든 것들은 평등할 것이고, 모든 생산된 것들은 새로울 것이다. 생산 원리를 초월자에 두는 재현적 사고에서 구분되는 '절대 가치'는 사라지고 힘의 강도 변화에 의한 사건의 생성·소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평등한 내재성에서 주체는 객체와 뚜렷하게 구분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식 대상인 세계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도 확신했던 과거와 달리 모호한 위치에서 서게 된다. 과학적, 논리적 감각 보다는 감각의 분화 이전의 상태로 뒤섞인 채 신체로 밀려드는 감각을 통해서 세계와 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표 1> 근대와 현대의 주체개념 비교

근대의 주체	현대의 주체
도상적 사본, 유사관계	환영적 사본, 상사관계
현실적, 경험적	비현실적, 선형적
질서, 재현	비재현적, 반통제적 질서
보편에 사로잡힘 범주	보편에서 해방된 차이

이탈리아의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는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서 '다중' 개념을 도입한다. '다중'은 전통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중'이나 '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복수적 주체의 개념이다. 그리고 다중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확장된다. 그러나 과거의 집단적 개념과 달리 다중은 수많은 내적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다중'의 탈중심적 개념은 종래의 국가를 '제국'이란 개념으로 대체한다. 그가 제시하는 '제국'에서 영토와 문화는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 되지 못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중은 국가와 인종 등을 초월한 집단을 형성한다. 동시에 특이성을 보존하면서 소통을 통해 공통성을 만들어 가는 주체이다. 네그리의 사고는 기존의 공간과 주체란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3.3. 현대적 주체와 사건성

소쉬르가 기표와 기표의 의미를 관계망에서 찾은 것과 같이 현대의 주체도 일정한 장 내의 역동적 변이와 관계한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사라진다. 따라서 오늘날의 진정한 규정들의 체계와 사회통념을 거부하면서 소요와 투쟁의 끝없는 '변증법적 운동'(dialegethai)을 살아가는 주체¹⁸⁾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장은 운동성을 담지한 현대 주체의 입장에서 근대와 구별되는 공간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따르면 공간과 관련한 건축

16)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01.위상학, 미베시스, 2010, p.71
 17)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플라톤주의를 뒤집다(환영들), 박정태 역, 이학사, 2008, p.32

18)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p.56

의 임무는 단지 기하학적 공간의 창출에만 주목하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공간의 일상적 체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대의 주체가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제3자를 상징하고 사유를 시작했지만 현대 사유가 이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메를로-퐁티는 '현실적으로 모든 공간적 규정에 점차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실제적 출발점, 절대적 여기가 없이는 어떠한 방향도 없고 따라서 어떠한 공간도 없다'¹⁹⁾는 설명으로 근대의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하학적 공간을 부정한다. 더불어 공간을 객관화된 무엇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미가 새롭게 생성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입장에서 내재성의 사유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상학은, 비록 근대적 주체는 아닐지라도, 세계를 지각하는 몸과 시각 우월주의를 여전히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객의 관계가 완전히 해체고 혼효된 현대의 주체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환영과 내재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사고할 경우 기능주의 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합리적 객관성은 사건 중심성으로 채워진다.²⁰⁾ 사건(event)이란 '물체들의 표면효과'라는 스토아학파의 사건론을 현대에 받아들인 들뢰즈의 사유에 연원한다. 이것은 구조주의의 정태적 사유에 우연적이고 역동적 힘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동적차원으로서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상학에서는 공간을 단순 시각적 경험이 아닌 몸을 바탕으로 한 지각활동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공간을 지각하는 신체와 공간이 이루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의미를 둔다.²¹⁾ 그러나 내재성을 토대로 한 공간론에서는 공간이 사건적 생명력을 지니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간 자체가-초월적 정신이 아닌-신체적 특성을 갖는다.²²⁾ 이 점에서 현상학에서의 신체, 즉 내 앞에 놓인 대상으로서의 공간을 지각하는 세계-에로-존재인 신체와 구분된다.

롤랑 바르트는 오늘날의 글쓰기에 대해 저자가 죽고

19)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는 공간을 '공간화된 공간'으로 보는 반면 지성주의는 공간을 '공간화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p.376.

20) '내재성'은 '초월적'원리의 반대 원리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 일자'가 원리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리로서 합당한/충분한 원리를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신지영,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p.77

21) 메를로-퐁티는 지각하는 자신의 안정적인 지평을 상징함으로써 어떤 공간적 수준을 인정하고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설명한다. 공간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 선행하는 것이 '정박점'(point d'ancrage)이다. 위의 책, pp.378-379 참조

22) 김석영, 신체성에 기초한 현대 회화와 램 콜하스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8권 6호 통권77호, 2009. 12 참조, 정현화, 세컨드 모더니티의 건축-가치관의 변용,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4, p.242 건축을 신체나 신체적 능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파악 한다.

사라진 새로운 차원으로서 필사자²³⁾에 의한 텍스트를 제시했다. 같은 의미로 주체는 확립적 기의만을 전달하는 고전적 의미의 '작품'을 읽는 주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모든 상상계의 긴장을 늦추는 한가로운 독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주체는 작품을 쓰는 한명의 작가가 아닌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특권을 상실한 비인격적 차원의 무엇일 뿐이다. 또한 들뢰즈의 내재성에서 확인한 역동적 생명력을 지닌다. 이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어떤 신체적 상태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어떤 신체적 상태가 다른 신체적 상태와 계열화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저자가 죽고 사라져 버린 바르트의 텍스트도 의미의 유희를 통해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미의 망(réseau)으로 확대된다.

공간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놓여있는, 저자와 책의 관계에서처럼 선행하는 건축가와 그 결과인 건축공간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논리에서는 원인과 결과로서의 건축가와 건축공간은 사라진다. 이때의 (현대적)주체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소유자로서의 건축가도 아니고,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공간도 아니다. 마땅히 객체와의 경계도 사라진다. 주체의 맞은편에 수동적으로 세워져 있는 대상으로서의 객체도 아니다. 주체와 객체의 경계는 사라진다. 건축 공간에서의 주체는 공간에 새로운 생명(내재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의 주체이다. 즉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다수가 모여 시나리오 없는 변화를 모색하는 다수로서의 주체이다. 신체가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의 장 내에 있는 한은 항구적인 변화를 거듭할 수뿐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신체적 공간이며 저자가 사라져 독자들에게 의해 의미가 수렴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텍스트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조차도 자신이 계획한 열린 공간 내에서 그 자체를 규명해 나가는 익명의 하나가 된다.

서구 고전에서 근대에 이르는 재현의 시대정신을 회화의 원근법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예술에서도 현대의 시대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현대 예술은 과거 예술에 부여되었던 규범(kanon)으로부터 벗어나 '차이'를 생성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재현 예술에서 따랐던 닮음의 미학이 아닌 새로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건적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은 일상의 익숙함을 벗어나 언제나 경계를 뛰어넘는(또는 무시하는) 새로운 감각을 탐구한다. 예술의 사건성은 예술이 단순히 주체의 상대개념인 객체로서 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작품과 감상자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미학²⁴⁾적 경향으로 설명된다.

23)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역, 문문선, 1997, p.31. 저자의 죽음, 각주5) 참조

24)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아트북스, 2005, pp.283-284, 주석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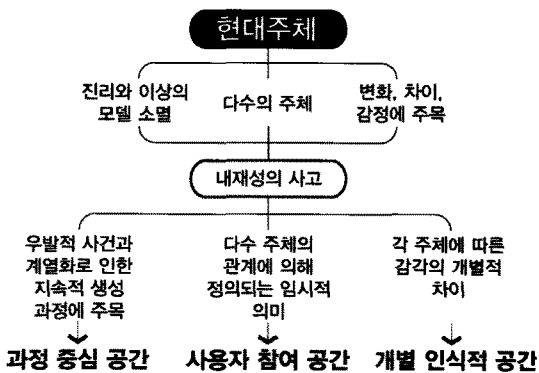
3.4. 소결

결론적으로 근대 사유를 현대와 비교하자면 이미 진리와 이상의 모델이 주어진 사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현대 사유는 모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론적 지향점이 주어지기 보다는 사건과 계열화로 인해 변화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이 보인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 내재성의 평면이다. 내재성은 생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현대 철학의 공간론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유를 전제로 한 공간은 동일성 보다는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두 번째, 코기토 즉, '생각하는 나'에서 시작된, 중심에서서 전체를 조망하던, 주체가 사라지는 현대의 사유는 저자의 죽음이 의미하듯 독자와 사용자 등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특히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주체는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네트워크상에서 경계를 해체하고 역동적으로 무리 짓기를 한다. 따라서 물리적 경계와는 다른 사용자들의 의지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경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공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범과 빈틈없이 조직된 프로그램이 아닌 사용자에 의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세 번째, 현대의 사유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함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선(善)도 사라진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개인보다는 자유로운 사고를 긍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감각에 있어서도 개별적 차이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표 2> 현대 주체와 관련한 현대 공간의 사건적 특성



4. 사건 중심적 건축공간

공간에서 사건이란 건축공간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로인해 비로소 공간이 규정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질 들뢰즈는 계열이란 특성을 통해서 사건을 고정된 점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탈주 선'과 연관 지었다. 내재적 생명력에 의해 그 의미가 무한히 변화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임은 분명하지만, 일반적 건축 공간은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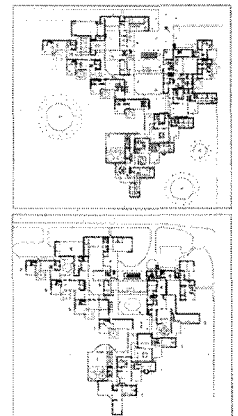
지어지는 인공적 결과이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성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달리 보면 건축 내의 무한한 잠재성의 발현은 공간의 부재(不在)와 같은 의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잠재성을 지향하는 건축공간일지라도 실제의 모든 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대 방식의 명료한 공간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는 생성적인 패러다임을 발견 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현대 건축공간의 사건적 특성이 발견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1. 과정 중심적 공간

건축 공간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정교한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된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해 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해 능동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은 계획자인 건축가가 지정한 경직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우 건축공간이 건축계획의 최종적 결과로 간주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암스테르담 어린이집 / 베를라헤 건축학교+사무실: 알도 반 아이크(1960 / 1990)

변화의 과정의 수용은 알도 반 아이크(Aldo E. van Eyck)가 설계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어린이 집'(Amsterdam Orphanage, 1960)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초기 계획은 보육원 시설로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건축주의 섬세한 요구²⁵⁾에 의해 계획되었다. 어린이 집으로 계획된 건축공간은 격자의 패턴을 기본적인 질서로 하되, 세부적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구체적인 요구들에 상응하는 작은 스케일의 장치들을 설치했다. 때문에 보육원의 기능이 아닌 건축학교와 사무공간(Berlage Institute+Office, 1990)으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도 기본구조는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알도 반 아이크가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격자구성 외에도 가구 수준의 작고 다양한 변화, 즉 사건의 수용이 가능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애매모호함 속에서의 명료성'이란 건축적 의지를 구현 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있어서 추구되어 왔던 '질서'와 함께 '혼돈' 또한 건축공간의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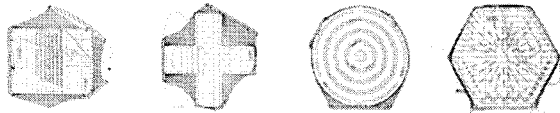
<그림 3> 알도 반 아이크, 암스테르담, 보육원(상)과 학교+사무소(하)로 운영될 때의 평면 비교, 세부적 공간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형태가 동일함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25) 봉일범,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시공문화사, 2005, pp.10-12

정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이 경우 건축가라는 계획의 주체도 흐려지고 사용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건축공간이란 주체도 사라진 공간으로 해석 된다. 이 경우 건축공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지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초기 단계²⁷⁾로 해석되는 것이다.

(2) 프라다 트랜스포머: 렘 콜하스(2009)



<그림 4> 렘 콜하스, 프라다 트랜스포머, 2009, 회전에 따라 변화하는 평면

건축의 변화과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프로젝트가 2009년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서울 경희궁 앞뜰에 계획한 프라다 트랜스포머(Prada Transformer)이다. 원형, 십자형 등이 사면체 각각의 면에 적용된 프라다 트랜스포머는 일정기간 마다 회전하면서 각각 상이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계획했다. 패션, 영화, 미술 등의 프로그램은 공간의 회전과 연동된다. 계획한 공간은 4개의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5개월이란 짧은 전시 기간 이후에 해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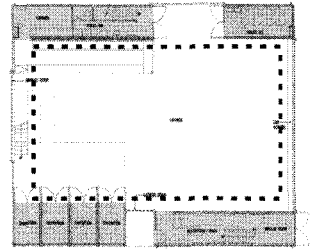
프라다 트랜스포머는 영화적 타이틀이 심어주는 기계적 역동성을 기대 했던 대중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존 건축 공간에 기대되었던 물성의 안정적 이미지를 벗어난 경량 재료와 인스턴트적인 프로그램의 전환은 한 장소에서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사건적 공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고궁의 전면 진입로란 특수한 장소에 설치되어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멸되는 또 다른 차원의 사건성이 발견된다. 렘 콜하스와 프라다가 의도한 것은 ‘가속도가 붙은 문화’와 상대되는 ‘변함없이 느린 건축’ 사이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적 실험이다.

(3) 플라톤 쿤스트할레: 그래프트 아키텍츠(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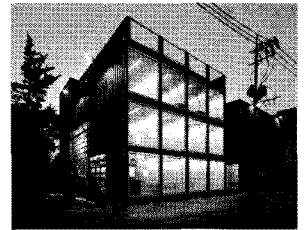
같은 2009년에 서울 논현동에는 플라톤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베를린에 설립된 플라톤의 아시아 본부격의 프로젝트이다. 28개의 컨테이너가 모여 중층의 건축물을 구성한 플라톤 쿤스트할레는 카페테리아, 전시, 친교 그리고 토론 등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이 장소는 기존 ‘화이트 큐브’의 고정된 미술관이 수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공간임을 상징적

으로 보여준다.²⁸⁾ 그렇기에 이 공간은 전시장 또는 카페테리아 등의 고정된 연표로 치환되지 않는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건축은 고정적이지만, 공간이 담고 있는 콘텐츠의 변화는 사용자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공간과 조우하도록 하는 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구나 앞의 두 사례와 비교할 때 담아내는 프로그램의 변화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는 공통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쿤스트할레는 건축가라는 중요한 판단의 주체마저도 전면에서 드러내지 않는 전략으로 차별된다. 건축 기본설계는 글로벌 디자인회사인 그래프트 아키텍츠(Graft Architects)에서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앞의 두 프로젝트가 언제나 건축가의 명성과 함께 소개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플라톤의 전략은 차이를 보인다. 익명적 건축가에 의한 공간이면서 건축구조물인 컨테이너는 필요에 따라 유닛이 재 설치되는 아이디어로 접근되었다.²⁹⁾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가에 의해 완성된 최종적 형태도 의미 없으며 그 속의 프로그램은 늘 진행 과정 중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5> 플라톤 쿤스트할레, 그래프트 아키텍츠, 2009, 변화를 담기 위해 비워진 중정



<그림 6> 플라톤 쿤스트할레, 그래프트 아키텍츠, 2009,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컨테이너

<표 3> 과정 중심적 공간의 특성

프로젝트	사건 공간적 특성
암스테르담 어린이집	기본구조의 변경 없이 초기 계획인 어린이집에서 학교와 사무소 기능 수용, 질서와 혼돈의 수용
프라다 트랜스포머	4개의 프로그램이 건물의 회전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 연속적인 사건의 발생과 소멸
플라톤 쿤스트할레	고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고정되지 않은 상징적 건축, 익명적 건축가

4.2. 사용자 참여적 공간

르 꼬르뷔제는 양친을 위한 별장으로 ‘작은 집’을 설계했는데 이 설계의 특징이 엄격하게 짜 맞춰진 프로그램이다.³⁰⁾ 이렇듯이 근대기에는 공간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건축가에게

28) www.kunsthalle.com

29) 기본 아이디어는 컨테이너의 재설치가 자유롭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고정된 구조물이 되었다. 그러나 물질적 환경이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내의 콘텐츠는 물질과 다른 동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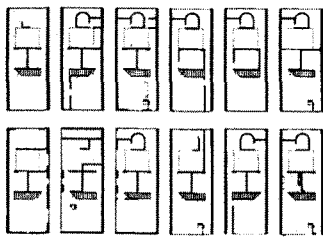
30) 르 꼬르뷔제, 르 꼬르뷔제: 작품과 프로젝트, 이관석 역, MGH, 2001, p.26

26) 김문덕, 렘 콜하스와 네덜란드 근·현대건축, 태림문화사, 2005, p.42
27) 봉일범, 앞의 책, p.111

말겨진 문제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가의 역할은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리적 계획을 제안하는 건축 작업의 주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가 아닌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비로소 완결되는 공간이 의도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도 위의 '과정 중심'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단, 앞의 사례들에서 건축가의 의도가 반영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본 절에서는 건축가의 의도보다는 사용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공간을 사례로 한다.

이 경우 건축으로서의 주체는 다수성으로 비인격화되고 공간은 연이은 탈주로 규정을 거부한다. 하나 이상의 사용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스스로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내면화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들이 하나로 계열화될 때 공간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게 된다. 사용자 집단은 각 개별성을 유지면서 일정한 공동의 장을 형성한다. 사용자 중심 공간에서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공통 장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서 작동하면서 공간을 포획한다.

(1) 페사크 집합주택단지: 르 꼬르뷔제(1925)



<그림 7> 르 꼬르뷔제, 페사크 주택, 1925, 집합주택의 평면, 개조 전(상)과 개조 후(하)의 비교(찰스 무어, 주택의 장소성)



<그림 8> 르 꼬르뷔제, 페사크 주택, 1960년대, 거주자에 의해 분절되고 덧창 등 장식요소가 설치된 수평으로 긴 창

1925년 프랑스 보르도의 페사크(Pessac)에 건립된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택단지는 프랑스의 사업가 프뤼게(Frugès)가 르 꼬르뷔제에게 의뢰한 프로젝트이다. 프뤼게는 어떠한 건축적 요구사항도 없이 건축가에게 모든 계획의 결정을 일임했다. 르 꼬르뷔제는 5m x 5m의 표준화된 기본 모듈을 변형하여 51호의 상자형 2층 주거를 계획했다. 프랑스 건축학자 필립 부돈(Philippe Boudon)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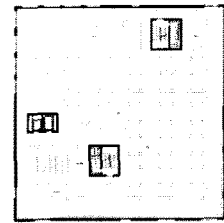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의 페사크 집합주택」(Pessac de Le Corbusier, 1967)이란 연구서에서 40년이 지난 페사크 주택이 거주자들에 의해 각각 개축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러한 꼬르뷔제의 이상과 현실적인 삶의 불일치에 대해 다수의 건축이론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찰스 무어(Charles Moore)의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³¹⁾ 페사크 집합주택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거장 건축가의 작품으로 이해하지

않고 직접 건축에 개입해서 건물을 자신들의 전망과 편의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변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롤랑 바르트의 틀로 이해하자면, 저자는 소멸되고 독자는 저자와 독자의 위치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내재적 생성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 출퍼라인 경영디자인학교: SANAA(2006)



<그림 9> SANAA, 출퍼라인 경영디자인학교, 2006, 사용자 참여에 의해 공간이 규명되는 스튜디오



<그림 10> SANAA, 출퍼라인 경영디자인학교, 2006, 2층 스튜디오 평면도

2003년 카즈요 세지마(Kazuyo Sejima)와 류에 니시자와(Ryue Nishizawa)의 SANAA는 독일 에센지방 출퍼라인이란 탄광도시에 경영디자인학교(Zollverein School of Management and Design)를 설계했다. 2006년 완공된 이 건축물은 한 변 35미터의 정방형 평면으로 옥상을 포함해 모두 5개 층 규모로 계획되었다. 스튜디오로 사용되는 2층(유럽 표기로는 First Floor임) 공간은 수직 동선을 수용하는 3개의 콘크리트 박스와 최소화된 기둥 등을 제외하면 어떠한 물리적 분절도 없는 하나의 공간이 된다. 오디토리움과 카페테리아로 사용되는 1층과 도서관인 3층의 구성도 투명소재의 최소화된 칸막이를 제외하면 층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열려 있다. 더불어 일반적인 요구보다 넓은 공간으로 계획된 실내는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개입과 적극적 참여를 의도하고 있다. 특히 천정 높이가 9.8m에 달하는 스튜디오 층은 사용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된다. 이때 건축가의 역할은 사용자들의 행위를 수용하는 토대의 구축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건축공간은 사건의 발생의 장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한다.

주변의 경관을 끌어 들이는 창호와 실내의 유리파티션에는 채광과 시선을 조절하기 위해 커튼을 설치했다.³²⁾ 사무공간으로 계획된 4층은 하부의 열린 공간과 대조되는 개실형(individual room type)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균등한 격자에 따라 구획된 방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시각적으로는 연속된다. 복도공간은 외벽을 따라서 설치하되 6개의 중정(patio)를 설치해 분리된 기능들을 중첩시키고 있다. 모든 사용자를 일체히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에 따라 각각의 이동경로와 근무 패턴이 생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32) 오디토리움 경계에 설치되는 커튼은 램 콜하스가 콘스트랄, 시애틀 공립 도서관의 오디토리움에 사용했던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실내에서 간단히 공간의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가설적 성격의 시설물이다.

31) 찰스 무어 외, 주택의 장소성, 광해선 역, 국제, 1984, p.127

확인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로 채워진다. 최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란 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표 4> 사용자 참여적 공간의 특성

프로젝트	사건 공간적 특성
페사크 집합주거단지	건축가에 의해 완공된 1925년 이래로 거주자의 의지에 의해 개축되거나 변형됨
솔퍼라인 경영디자인학교	최소화된 건축구조와 사용자에게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의한 사건 수용, 사용자 공동의 장

4.3. 개별 인식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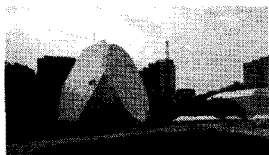
근대의 재현적 사고는 보편과 질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가치관을 기대한다. 따라서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수일지라도 모두를 공통된 감각으로 포획하고자 한 것이 근대주체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주체에서는 기존의 가치관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주의 행위가 일어난다. 따라서 건축공간은 동일성 보다는 각각의 개별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감각되는 차이를 지향한다.

현대의 사고 자체가 규칙과 범주를 벗어난 모호한 경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례의 특성도 중복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공간이 개별자에 따라 다르게 감각되는 사례들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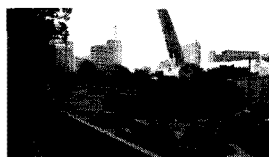
(1) 프라다 트랜스포머: 렘 콜하스(2009)



<그림 11> 렘 콜하스, 프라다트랜스포머, Waist Down, 2009.05



<그림 12> 렘 콜하스, 프라다트랜스포머, Art, 2009.08



<그림 13> 렘 콜하스, 프라다트랜스포머, 철거과정, 2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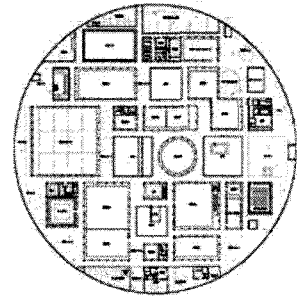
렘 콜하스의 프라다 트랜스포머에서도 경우에 따른 개별적 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전체적인 이벤트의 진행을 인식하지 못한 몇몇 관객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프로젝트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면, 각자는 서로 다른 형태와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건축을 체험하게 된다. 어떠한 시기에 어떤 사건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다른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공간에 대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만 개별적인 기억만이 남을 뿐이다. 변화하는 사건은 다수 주체들의 경험과 관계 맺으며 개별적인 계열화를 형성한다. Waist Down, Cinema,

Art Exhibition, Student Takeover 등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관람자와 각각 다르게 관계 맺는다. 더불어 일정 기간 후 설치물이 철거되어 기존의 환경으로 환원되었다

는 것도 하나의 사건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SANAA(2004)

SANAA가 카나자와에 설계한 21세기 미술관(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은 상설 전시, 기획전시, 주민시설 그리고 중정 등의 여러 가지 개별 프로그램을 원반형의 건물 내에 불규칙한 사각 형태로 분산 배치한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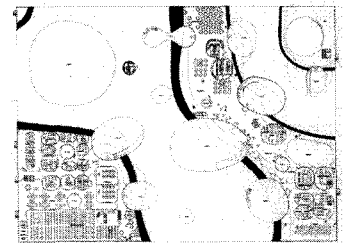


<그림 14> SANAA,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 2004, 원형의 공간 내부에 분산된 프로그램

면 (facad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방으로 열린 공간이다. 각기 다른 입구로 진입한 관람자들은 공원처럼 펼쳐진 실내 공간 내에서 흩어져 있는 개별적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관람자들은 자유롭게 그들 자신만의 경험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다. 물질적, 기능적 변화가 없더라도 미로적 평면에 의한 동선 경험에 따라 개별 관람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3) 로렉스 학습센터: SANAA(2010)

스위스 로잔느 공대와 로잔느 대학 캠퍼스 사이의 녹지에 계획된 SANAA의 로렉스 학습센터(Rolex Learning Center)는 사용자에게 따른 개별적 인식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킨 프로젝트이다. 직사각형의 건물은 모든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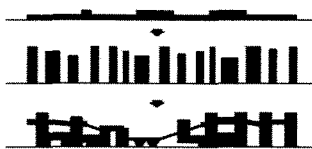


<그림 15> SANAA, 로렉스 학습센터, 2010, 인공 구릉 위에 불규칙하게 분산된 실내 프로그램과 타원형 중정

접근로를 갖고 있으면 각 접근로는 각기 다른 도시 기능과의 연결점이 된다. 실내에서 곡선형 중정들 사이로 흐르는 동선과 모호한 프로그램의 경계는 과정중심의 공간이면서 또한 사용자 참여의 공간이다. 더불어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사용자들 간의 상호 관계가 형성된다. 크고 작은 중정과 완만하게 굽은 슬래브로 형성된 실내의 구릉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 발생의 평면으로 작동하도록 의도되었다.

(4) 링크드 하이브리드: 스티븐 홀(2009)

복잡하게 뒤섞인 동선을 통해 산발적인 경험을 의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스티븐 홀(Steven Hall)이 설계한 중국 베이징의 링크드 하이브리드(Linked Hybrid)이다. 프로젝트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된 혼성체'를 표방하고 있다. 스티븐 홀은 북경의 중심부를 굽어 볼 수 있는 위치에 8개 동의 복합 시설을 계획했다. 그는 호텔, 주거, 공원 그리고 상업공간 등의 다양한



<그림 16> 스티븐 홀, 링크드 하이브리드, 2009, 혼성개념 다이어그램



<그림 17> 스티븐 홀, 링크드 하이브리드, 2009, 혼성을 촉발하는 연결 다리

시설을 수용하면서 ‘도시 속의 열린 도시’라는 개념으로 베이징의 복잡한 도시생활을 담고자 의도했다. 건축가는 수직적으로 상업시설, 옥상정원, 집합주거 등 각기 다른 3개의 층위를 중첩시키고 다양한 통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의 생활을 건축물에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복합적이고 우연한 마주침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램

폴하스는 프로그램이 수직적으로 중첩된 맨해튼에서 밀집문화를 발견했다. 스티븐 홀은 더 나아가 밀집된 프로그램에 거미줄처럼 뒤섞인 동선을 덧붙임으로서 사용자에게 따라 다른 공간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혼성의 공간을 만들었다.

<표 5> 개별 인식적 공간의 특성

프로젝트	사건 공간적 특성
프라다 트랜스포머	사용자가 관계 맺는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공간
21세기 미술관	건물 정면의 소멸, 분산 배열된 프로그램과 관람자들의 개별적 관람경로 유도
로렉스 학습센터	다양한 도시기능과의 접점이 되는 분산된 입구, 실내의 인조 구릉과 모호한 프로그램의 경계, 과정의 공간, 우연의 수용
링크드 하이브리드	관습적 직교체계를 교란하는 미로적 연결통로, 사용자 간의 각기 다른 내부 경로의 가능성

현대 예술이 재현이 아닌 차이의 발견에서 그 가치를 찾으려 하는 것과 유사하게, 현대 건축공간도 변화와 차이를 생성하는 기계로서 작동한다. 여기에서 차이는 다른 공간과의 물질적 다름뿐 아니라, 공간에 머무르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감각의 차이로 해석된다.

<표 6> 현대 공간디자인의 사건적 특성

현대 사유의 사건적 특성	사건적 공간의 특성	사건 공간의 표현 양상
우발적 사건과 계열화로 인한 지속적 생성 과정에 주목	계획 중심 공간	프로그램 변화의 적극적인 수용 혼돈과 우연의 인정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의 물리적 변화 사용 용도의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이양한 건축가(사용자 참여 공간의 표현 양상과 중복)
다수 주체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임시적 의미	사용자 참여 공간	사용자에 의해 새롭게 규명되는 공간 사용자들이 만들어 내는 공통의 장(場) 건축가의 결과에 덧붙여지는 개별 사용자의 의지 참여가 유도되는 토대(土臺)로서의 공간
감각의 개별적 차이에 주목	개별 인식적 공간	기존의 가치관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 이데올로기의 강요에서 벗어난 개별 감각의 존중 경우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공간

5.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시기의 주체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변화한 오늘날의 주체를 비교했다. 근대의 주체가 재현의 논리에 포섭된 추상적 본질을 상징했었다면, 현대의 주체는 포섭에서부터 탈주하려는 신체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패러다임 아래에서 건축 공간은 완전한 합리성을 지향하는 고착된 프로그램들의 구성으로 이루어 졌다. 반면 변화를 기본 속성으로 한 현대의 담론은 사건의 변주(變奏)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드러남 또한 확인했다.

건축공간이 어떠한 제약도 없는 채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을 수용할 수는 없다. 질 들뢰즈가 유기체의 조직화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분화 이전의 상태를 긍정하는 의미로 ‘기관 없는 신체’를 설명하면서도, 파시스트의 암적인 그리고 마약 중독자와 같은 공허한 신체를 경고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이처럼 모든 사건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할 수는 없으나, 현대 사유는 다양성과 차이를 도덕과 윤리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재현이 사라진 사고체계에서 선(善) 또는 아름다움(美)이 차지했던 최고의 지위와 가치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주체의 자리도 변했다. 결과적으로 공간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선(善)을 표방하는 완벽한 완성을 위한 공간이 아닌, 우연적이고 변화하는 공간을 사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최근의 건축공간을 분석한 결과 분화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사건으로 채워진 공간을 몇 가지로 정언할 수는 없으나, 공간들 내에서 공통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과정 중심적 특성이다. 사건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공간은 연속적 변이의 과정에 놓여 있고, 사용자는 하나의 순간을 감각한다. 건축가에게 부여 되었던 계획의 결정권은 약화되고, 사용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공간 자체의 권력 또한 약화된다. 둘째, 사용자 참여적 특성이다. 현대 주체가 관계들의 체계 안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같이 공간도 그 내부

사용자들과의 관계 내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일자의 지배는 사라지고 다수의 주체가 개입된 공간은 사건 발생의 장(場)이 된다. 셋째, 개별 인식적 공간이다. 공간자체가 아닌 공간을 감각하는 개별 사용자들에게 차이가 의도된다.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낯선 공간이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대 건축 공간의 특성으로 지목한 역동적인 사건성을 오늘날의 보편적인 공간디자인의 접근법으로 성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플라톤 이래 서구 사상의 기틀이 되었던 이성 중심적 사고는 최근의 철학자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도전은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변화로서 사건(환영)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공간적 특성들로 미루어 건축 공간도 같은 변화의 흐름 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김문덕, 렘 콜하스와 네덜란드 근·현대건축, 태림문화사, 2005,
2.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사, 2001
3. 박영욱, 필로아키텍처, 향연, 2009
4. 봉일범, 건축-지어지지 않은 20세기,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시공문화사, 2005,
5. 서현, 건축을 묻다, 효형출판, 2009
6. 신지영,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7.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8.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7
9.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개정증보판), 그린비, 2010
10.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01.위상학, 미메시스, 2010
11.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아트박스, 2005
12.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김희영 역, 동문선, 1997
13. 르 꼬르뷔제, 르 꼬르뷔제: 작품과 프로젝트, 이관석 역, MGH, 2001
14. 마크 젤런터,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생각, 최아사 역, 한길사, 2007
15.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16. 비난트 클라센, 서양건축사, 신우갑·조희철 역, 아키그램, 2003
17.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공역, 시각와 언어, 1994
18.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이학사, 2008
19. 찰스 무어 외, 주택의 장소성, 광혜선 역, 국제, 1984
20. 김석영, 신체성에 기초한 현대 회화와 렘 콜하스 실내공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8권 6호 통권77호, 2009.12
21. SANAA Sejima + Nishizawa 2004-2008, El Croquis Vol. 139, Madrid, 2008
22. SANAA Sejima + Nishizawa 1983-2004, El Croquis Vol. 121/122, Madrid, 2007
23. www.kunsthalle.com
24. www.oma.nl
25. www.stevenholl.com
26. www.zollverein-school.de

[논문접수 : 2011. 04. 26]

[1차 심사 : 2011. 05. 18]

[게재확정 : 2011. 06. 10]